

# 유럽통합 사상과 역사에 비추어 본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의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창설 제안 ? -1)

## 노명환<sup>2)</sup>

1. 머리말
2.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 쟁점과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개념
  - 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내용
  - 2) 해석과 쟁점 그리고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개념
3. 비교의 관점으로서 연방주의 유럽통합론과 유럽통합의 역사 특징
  - 1) 대외 방위에 역점을 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통합 사상
  - 2) 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통합 사상의 변천
4.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사상으로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의
5. 맺음말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현 시대를 위한 시사점)

## 1. 머리말

유럽통합사를 연구하고 있는 필자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제 1차 세계대전 및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개된 유럽통합 사상들과 많은 공통점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동양평화론 연구의 폭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안중근의 활동과 저술 및 진술을 볼 때 그는 투철한 민족주의자이고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인지되어 그 모순적인 측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모순이 아닌 어떠한 새로운 일관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정립되어 간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과 제 2차 세계대전 후 실현되어 가는 유럽통합사를 반추해 보면서 안중근이 이들보다 더욱 선구적으로 초국가주의 지역통합 사상을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순들이 더 이상 모순이 아니고 필연적인 논리적 연계 사항들이

---

1)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2009년 10월 22일 안중근기념사업회에 의해 개최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2)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된다.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양자를 비교하여 동양평화론을 더욱 넓은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으면 하지만 혹여라도 끼워맞추기식 해석이 되는 측면을 노정할 수 있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호된 질책과 대안의 사고들을 통해 짜맞추기 가능성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 독립과 인류 사회의 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속에서 투쟁했던 선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도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유사한 관점을 그리고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고심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식체계와 가치관 그리고 실행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유럽통합론자들의 초국가주의 지역통합 사상을 비교하고 각각의 본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처음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연구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유럽통합 사상 및 역사를 개괄하고 이와 맥락에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미와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유럽통합의 사상과 현실 역사에 비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최서면은 “오늘날 유럽에 EU가 생기고 또 최근에는 APEC가 생기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미 80여년 전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 논리는 안중근 의사가 일개의 군인이라기보다는 대정치 사상가로 보여지는 일면이다.”<sup>3)</sup> 라고 언급하였다. 김영호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EU 모델과 닮은 선구적 주장’ 이라고 평가했다.<sup>4)</sup>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위해 유럽의 지역통합과 평화정착 및 독일통일 과정을 참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통합 사상들과의 비교 측면에서 조명되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시의적절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 2.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 쟁점과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개념

### 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내용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1910년 2월 14일 일본인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여순(旅順) 고등법원 원장과 행한 면담에서 제시하였다.<sup>5)</sup> “새로운 정책은 旅順을 개방한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어 세 나라에서 대표를 파견해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 여순은 일단 청국에 돌려주고 그것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재정확보에 대해 말하자면 旅順에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한 명당 회비로 1원씩 모금하는 것이다. ...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공용하는 화폐를 발행하면 신용이 생기므로 금융은 자연히 원만해 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 평화회의 지부를 두고 은행의 지점도 병설하면 일본의 금융은 원만해지고 재정은 완전해질 것이다. 旅順의 유지를 위해서 일본은

3)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집문당 (서울) 1994, 193 쪽.

4) 김영호, “북유럽에서 본 안중근”, 『경향신문』 2009년 8월 4일자 오피니언 칼럼.

5) 안중근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하게도 그의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들을 이 면담 내용인 청취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군함 5, 6척만 계류해 두면 된다. ... 이상의 방법으로 동양의 평화는 지켜지나 일본을 노리는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한다. ... 청과 한국 두나라는 일본의 지도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패권이라는 말부터 의미가 없어지고 滿鐵(만주철도) 문제로 파생되고 있는 분쟁같은 것은 꿈에도 나타날 수 없게 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印度, 泰國,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이 회의에 가맹하게 되어 일본은 싸움없이도 동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 日, 淸, 韓 세 나라의 황제가 로마교황을 만나 맹세하고 관을 쓴다면 세계는 이 소식에 놀랄 것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3분의 2는 천주교이다. 로마교황을 통해 세계 3분의 2의 민중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sup>6)</sup>

## 2) 해석과 쟁점 그리고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개념

이러한 안중근의 제안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어떠한 사상적 또는 시대사적 맥락 위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많은 안중근 연구자들은 동양평화라는 그의 개념이 당시의 ‘문명개화론자’들이 전개한 삼국공영론과 삼국제휴론 등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7)</sup>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핵심 논지인 세계정부 개념과 국제평화군의 개념 등도 문명개화론자들에 의해 한성순보와 독립신문 등에서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또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필자의 미친한 지식으로 볼 때도 안중근은 이러한 시대의 담론들을 듣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동양평화사상을 정립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의 위에서와 같은 정책 제안들은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대단히 독특한 측면을 갖는다고 보아진다. 이 독특성이 무엇인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를 느낀다.

강동국의 연구는 당시의 논점들과 이론들이 안중근에게 전달되었을 정보소통 경로를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sup>9)</sup> 그러면서 그는 또한 안중근의 사상이 그 시대에서 독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강동국은 3종류로 동아시아의 국가와 지역관계 인식을 구분하였다.

첫째, 당시 일본이 전개했던 제국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시킨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둘째, 중국과 한국에서 많이 전개되었던 것으로서 제국주의와 결합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투쟁하는 의미의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와 결합된 지역주의에 투항하는 의미의 지역주의.

셋째, 안중근이 개진한 것으로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지역주의가 결합한 현실에 대항해서 민

6) 「청취서」,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55-56쪽.

7) 삼국제휴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00년 여름호 제13집, 7-33쪽; 삼국공영론에 대해서는 김신재, 「〈獨立新聞〉에 나타난 ‘三國共榮論’의 性格」, 『경주사학』 제 9집, 113-138 쪽.

8) 김현철, 「20세기초 한국인의 대외관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460-461 쪽.

9)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419-430.

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시키면서 투쟁하고 제국주의와 지역주의가 잘못 결합된 현상을 교정하려 함.<sup>10)</sup>

강동국은 “이로 인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중국 등에서 비슷한 구조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신채호류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동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sup>11)</sup> 고 평가하였다. 이 유일성의 근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관심 속에서 필자는 안중근이 지역의 평등한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supranational regional community) 혹은 연방체 (regional federation)를 구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유의 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안중근의 구체적 제안들이 오늘날의 유럽통합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사상들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12)</sup>

안중근이 추구한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결합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독립된 국가를 이룬 민족들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평등하게 결합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지역결합체는 대외적으로는 방위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대내적으로는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역통합체의 창설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합체 구상에서 주요 적은 제국주의적 지역통합론이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일 것이다. 안중근에 있어서는 이등박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세력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민족국가들의 지역통합체 지지자들과 제국주의 통합체 지지자들의 관계가 대립되는 것이었다. 평등한 민족국가들의 지역통합체론에 찬성한다면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 동지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 같은 국가에 속하는 국민이더라도 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동양의 지역공동체 내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한 방책이고 그의 민족주의 관점과 대립되는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등박문을 저격하면서도 천황과 일본 민중에게는 신뢰를 주는 측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도덕을 갖추고 각자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sup>13)</sup> 이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역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안중근이 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결합에 있어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 속에서 민족이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민족주의에 반한 것이 아니다. 그 지역 각자의 민족주의들이 충돌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지역의 공멸을 초래한다면 이는 민족주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통합체가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안중근은 생각하였을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안중근이 제안한 구체적 정책들이 갖는 함의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평등한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였다. 공동의 항구, 공동화폐, 공동은행, 공동군대, 공동의 언어·문화 교육,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것은 국가들의 단순한 협의체 차원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인도,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전제하고 있고 세계 민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톨릭 교의 수장인 로마교황의 승인을 받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단힌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열린 지역공동체로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양공동체가 서양으로부터의 방위를

10)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412 쪽.

11)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412 쪽.

12)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임.

13) 강동국은 안중근의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는데 이는 위의 관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431-433 쪽.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양 지역의 대결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서양이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연대가 가능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단기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시켜 지역공동체 창설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안중근의 사상과 그의 사상을 담는 언어가 그 시대의 담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 담론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독특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중근이 그 시대의 담론인 인종론에 의거하여 폐쇄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상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sup>14)</sup> 이러한 점들을 그의 동양평화론의 한계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중근이 인종에 의해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당시의 담론들을 구성하는 언어에서 차용한 어휘와 개념들일 뿐인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관점이 인종주의 사상을 내포한다거나 인종론에 귀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중근은 일찍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죽음의 순간까지 무엇보다도 가톨릭에 충실했으며 서양인 가톨릭 신부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고 함께 계몽운동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이 어찌 인종론에 의거하여 서양을 파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가 서양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인종론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지배를 하며 이를 위해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물질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정신문화의 요람인 학문을 중시하는 지역이었다. “지금 세계는 동서(東西)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기(利器) 연구같은 것을 보더라도 농업이나 상업보다 대단하며 새발명인 전기포(電氣砲), 비행선(飛行船), 침수정(浸水艇)은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物)을 해치는 기계이다. … 예로부터 동양민족은 다만 학문에 힘쓰고 제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고 도무지 구주(歐洲)의 한치의 땅이라도 침입해 뺏지 않았음은 5대주 위의 사람이나 짐승 초목까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가까이 수백년 이래로 구주의 여러 나라들은 도덕(道德)을 까맣게 잊고 날로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기탄하는 바가 없는데 …”<sup>15)</sup> 그는 서양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술했다. “청년들을 훈련하여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犧牲)처럼 버리고 피가 넷물을 이루고 고기가 질펀히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질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정이거늘 밝은 세계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sup>16)</sup>

그가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평화를 모색했을 정황을 확실하게 엿보게 하는 언급들이다. 그의 지역통합체 사상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근원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 대외적인 방위에 궁극적인 역점을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외 방위 그것은 임시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일 따름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내에 그리고 세계에 근원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그 방위체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안중근은 제국주의 정책을 통한 패권추구의 무망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14)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416-419 쪽. 그러나 강동국은 “천주교라는 보편적인 종교의 가치를 매개로” 동서양을 넘어설 수 없는 이분법으로 보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위의 글, 431 쪽. 최기영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기본 출발점을 인종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다.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최기영 편,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2003년, 92-113 쪽.

15) 안중근,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48 쪽.

16) 안중근, 「동양평화론」, 48 쪽.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권한다. “霸權을 잡으려면 비상한 방법을 써야하는데 일본이 취해 온 정책은 20세기에서는 모자라기 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래에 외국에서 써오던 수법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약한 나라를 병탄하는 수법이다. 이런 생각으로 패권을 잡지 못한다. 아직 다른 강한 나라가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7)</sup>

그 비상한 수단이라는 것이 여순을 청국에 돌려주고 여순을 공동의 항구로 만들고 이곳에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여순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sup>18)</sup> 이는 제국주의가 아닌 평등한 국가들의 지역공동체를 창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순에 공동항을 만들고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이를 평화의 근거지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안중근은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방식으로만 일본은 진정한 패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강한 나라들이 아직 갖지 못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안중근 스스로 그의 제안이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 ‘가톨릭의 보편적 진리 그리고 보편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는 안중근의 사상이 당시 시대 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측면이다.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유럽통합에서 보는 것과 같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통합론과 와 유사한 형태의 어느 것 아닐까 하고 추론해 본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세계공동체를 지향하는 그의 구상들이 당시의 평화담론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이들은 다만 안중근의 평화사상 정립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뿐 사상의 차입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그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은 당시로서는 독특하게 독창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는 그의 고유 사상체계와 직관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다.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집필한 것은 1909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내 의견을 愚見이라고 비웃을지 모르나 이것은 어제 오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몇해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다.”<sup>19)</sup>

그런데 문제는 안중근의 지역공동체 구상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이등박문 등 몇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러한 지역공동체 구상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점에서 실현불가능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안중근 사상의 결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상태의 당시 현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0)</sup>

안중근은 일본 제국주의주의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그는 사람들의 본질의 이해에 있어서 성선설의 입장에 있었는가? 하는 점들이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필자는 이 의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유럽통합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논점과 관련될 수 있는 유럽통합사와 유럽통합사를 개괄하기로 한다.

17) 안중근, 「동양평화론」, 54 쪽.

18) 안중근, 「동양평화론」, 55 쪽.

19) 「청취서」, 54 쪽.

20) 바로 이 점 때문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동아시아의 오늘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 3. 비교의 관점에서 연방주의 유럽통합론과 유럽통합의 역사 특징

#### 1) 대외 방위에 역점을 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통합 사상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유럽인의 정체성은 711년 이슬람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해 오고 732년에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왕국으로 쳐들어오면서 이에 대항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중세를 지나 근세에 이르러 유럽통합 주장은 바로 이슬람세력에 대항한 생존과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군전쟁, 오스만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점령, 발칸반도 유린,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인 비엔나를 세 번씩이나 포위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슬람의 위협은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통합 사상은 이슬람에 대항한 대자적인 관점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황화사상이 또한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훈족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등을 겪었고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했을 때 유럽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동양 삼국의 제휴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론자들은 또한 공산화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는 강력해지는 미국에 대항해서 유럽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간의 전쟁이 또한 유럽인들이 단결을 부르짖게 만드는 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측면에서 유럽통합론들은 적을 상정한 유럽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아시아연대론, 삼국공영론, 삼국제휴론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의 중심으로서 유럽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유럽통합을 유럽의 제국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달리 말해 해외 식민지를 계속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될 유럽에서 저마다 패권을 잡고자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국가가 유럽의 패권을 잡도록 이 유럽통합론을 이용하려 하였다. 통합되는 유럽에서 패권을 잡으면 그것은 피흘리지 않고 얻는 유럽 정복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스마르크는 유럽국가들이 유럽의 이름을 빌려 자국의 이해를 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폴레옹은 일찍이 정복을 통해 프랑스의 지배아래 유럽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다른 측면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 유럽통합을 주창하였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생시몽(Comte de Saint-Simon),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등이다.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중반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했고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재원을 사회와 인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sup>22)</sup>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유럽통합 사상에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sup>23)</sup> 그러나 민족주의 대세가 강한 시대에 이러한 유럽통합 사상은 극소수 선각자들의 극히 이상적인 이념일 뿐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갖지 못했다.

21)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대출판부 2001, 2-4 쪽.

22) 노명환, 같은 책, 6-7 쪽.

23) 칸트는 이것으로서 초국가주의 세계시민사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들의 연합을 제안한 것이었다. Immanuel Kant (이한구 옮김), 『하나의 철학적 기획.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08 (개정판).

## 2) 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통합 사상의 변천

제 1차 세계대전은 당시에 전대미문의 대량파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파괴력은 어떠한 민족주의의 성취도 한 번의 전쟁으로 폐허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럽인들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인식이 전후 유럽통합 운동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과 유럽통합을 목표로 하는 반전운동이 크게 진작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전운동가인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개선문” 과 같은 소설들을 통해 젊은이들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전장을 신랄하게 고발하였다.<sup>24)</sup> 이러한 반전운동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반성하고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달성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때부터 유럽인들에게 평화는 이상적인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실존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제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전개된 유럽통합 운동의 핵심은 어느 외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평화 운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의 유럽통합 운동의 목표와 크게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의거하여 국가들의 연맹체인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었으나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쿠덴호브-칼레르기가 조직한 범유럽 연합 (Pan-Europa)이 그 대표적인 유럽통합 운동이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이 정권을 잡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독일 나치는 “유럽의 신질서 (New Order in Europe)”<sup>25)</sup>를 선전하고 인종에 의거한 유럽의 재편성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방법으로 전쟁을 채택했다.<sup>26)</sup>

이에 대해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저항운동가들 중에는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전쟁의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주의를 전개하였다. 이탈리아의 저항운동가이며 연방주의자들인 스피넬리 (Altiero Spinelli)와 로시 (Ernesto Rossi)는 벤토테네 선언문을 통해 파시즘을 민족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물질만능에 기초한 인류문명 위기의 징후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연방주의 유럽통합과 사회개혁을 주창했다.<sup>27)</sup> 이 연방주의에 대한 다른 예로서 독일의 몰트케 (Helmuth von Moltke)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을 포함하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그리고 북유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단일 주권 하에 놓이는 유럽연방의 창설을 설파했다. 그는 또한 유럽 각 국가들은 연방내의 주 (州)가 되어 연방에 주권을 양도하고 경제정책 등에서 자치를 수행하는 유럽연방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

24) 이러한 유럽의 반전 사상가들의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안중근의 전쟁의 비극에 대한 고발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25) Karl Albrecht: Gustav Schlotter's view on the 'New Order in Europe', 19 July 1940,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59-60 쪽.

26) Joseph Goebbels: The Europe of the Future, 11 September 1940,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73-76 쪽.

27) The 'Ventotene Manifesto', August 1941,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71-484 쪽.

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유럽의 체제만이 독일 나치가 보여주는 유럽의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유럽을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로 전환시키고 세계 평화체제의 한 단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8)</sup> 이탈리아의 저항운동가이며 연방주의자인 에이나우디 (Luigi Einaudi) 는 단일화폐의 창출과 중앙은행 그리고 연방경찰과 연방군대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동의 문화정책과 산업정책을 구상했다.<sup>29)</sup> 당시 프랑스의 저항운동 단체였던 ‘유럽연방을 위한 프랑스 위원회’는 유럽시민권의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sup>30)</sup>

저항운동에 헌신하면서 유럽통합의 전후 질서를 수립하고 자 했던 독일인 괴르델러 (Carl Goerdeler)는 유럽통합안으로서 영구대표위원회 (영구연방위원회)에 의한 통치,<sup>31)</sup> 통일된 법률, 관세동맹, 통합 운송제도, 공동화폐와 상호 예산통제, 강제 중재 (유럽 법원), 유럽방위군, 유럽경제이사회, 유럽연방의회를 제안했다.<sup>32)</sup> 그런데 괴르델러는 “유럽은 세계질서에 통합되어야 한다.”<sup>33)</sup> 고 했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가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 국가는 다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조직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국제관계에서 도덕에 관한 이중의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정책은 다른 민족들의 이익과 서로 다른 자질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sup>34)</sup>

### 3)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통합의 발전

유럽통합을 추구하던 저항 운동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전쟁 영웅이 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 이 1946년 9월 쾰리히 (Zurich University)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하였다.<sup>35)</sup> 처칠의 지지자를 비롯한 유럽통합론자들은 194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

28) Helmuth von Moltke: 'Assumptions and Problems' (9 June 1941),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388-391 쪽. 노명환,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초국가주의와 민족·영토·역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독일 민족 경계의 축소를 전제로 한 유럽통합과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과정」,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133 쪽.

29) Luigi Einaudi: 'For an economic federation of Europe',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520-528 쪽.

30) Comité Français pour la Fédération Européenne: 'Declaration',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I,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347-350 쪽.

31) Carl Goerdeler: 'Practical Steps towards the Reorganization of Europe', early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40-441 쪽.

32)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p. 445-446; 노명환,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초국가주의와 민족·영토·역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독일 민족 경계의 축소를 전제로 한 유럽통합과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과정」,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134-135 쪽.

33)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46 쪽.

34) 위의 글, 446 쪽. 이는 안중근의 사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Hague)에 모여 유럽의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아 그 이듬해에 유럽평의회를 (Council of Europe) 조직하고 그 본부를 알자스-로렌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설치하였다.<sup>36)</sup>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운명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사상이 쉽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유럽평화 파괴의 원인으로 규명된 독일이 처음에는 4개 지역으로 분할되고 나중에는 서독과 동독의 2개 지역으로 분단되었다. 그 결과 유럽이 또한 동·서로 분단되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장 모네 (Jean Monnet) 와 로베르 슈망 (Robert Schuman) 의 지도 아래 서독을 포함한 6개국이 유럽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sup>37)</sup>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독일이 다시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유럽내부에서 제기될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의도에 기인했다. 1950-1952년 사이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가 창설되었다. 이는 당시 전쟁 무기를 위해 중요한 원자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송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sup>38)</sup>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단된 독일 중 서독이 나치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민주화 그리고 유럽통합의 대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이 지역공동체 내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알자스-로렌 지역을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공동 상징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는 국가주의에서 초국가주의로 (또는 민족주의에서 초민족주의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sup>39)</sup> 독일과 프랑스에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차원에서 알자스-로렌 지역의 소유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그

35) Bernt F. Nelsen and Alexander Stubb (ed.), *The European Union. Reading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uropean Integration*, (third edition), Boulder / London, 2003, 7 쪽.

36)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45-446 쪽.

37)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망은 석탄철강공동체를 형성하여 각국이 무기 제조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유럽 공동의 산업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를 확대하여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재정공동체, 유럽방위공동체, 유럽정치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청취서의 내용들과 깊은 유사점을 보인다. 김영호, “북유럽에서 본 안중근”, 『경향신문』 2009년 8월 4일자 오프니언 칼럼.

38) Wilfried Loth, 『Der Weg nach Europa』, Göttingen 1990; Ernst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39) 알자스 지역은 독일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독일 지역이었으나 1681년 프랑스가 그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프랑스에 귀속되었다. 알자스 지역은 언어 종족 문화적으로 독일계인데 정치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속했다. 그리하여 1870년 보불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자 민족주의 상징의 정책으로 알자스를 독일영토로 귀속 시켰다.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알자스 지역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갔다. 제 2차 대전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알자스를 독일 영토로 편입시켰다. 알자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간의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차원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권오중, 「1945년 이전 시기까지 중부유럽에서의 영토갈등. 독일 민족의 연고권에 따른 주변민족과의 영토문제와 국경의 변화 그리고 독일제국과 제3제국 시기의 소수민 정책 (1917~1945)」,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109-113 쪽.

래서 그것의 소유를 위해 양 국가는 지속적으로 쟁탈전을 펼쳤다. 그런데 초국가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유럽통합을 수행하면서 알자스-로렌 지역은 유럽의 상징지역으로 설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곳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에 유럽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상설회의 기구를 설치하고 자 하였는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 1949년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건립으로 나타났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자문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고 이는 후에 유럽의회로 발전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 9월부터 1954년 8월에 이르기 까지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와 유럽정치공동체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 를 창설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다. 결국 실패하였지만 이들이 실현되면 초국가주의 유럽연방이 창설되는 것이기에 이 때에 많은 연방주의 통합론자들이 기대감을 크게 가졌다. 1957-58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가 설립되었다. 1965-1967년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EC)가 탄생했다. EC는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의 산업정책, 공동의 농업정책, 공동의 어업정책, 공동의 지역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가 성립되어 단일시장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단일시장은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가 자유로이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공동의 시민권 창출을 위하여 공동의 교육정책 및 공동의 언어-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 공동의 시민권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일년 후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체제들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고 이와 더불어 서유럽을 넘어선 유럽 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1991-93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이 창설되었다. 단일시장이 이루어지고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단일화폐가 도입되었다. 현재의 유럽연합을 넘어서 유럽연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 있다.

지금까지의 유럽통사 개괄에서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유럽통합에서 주 관심은 외부로부터 방어를 위한 내부 단결이 아니라 유럽 내부의 전쟁 요인들로부터 평화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보다 치열하게 이 문제에 집중했다. 무엇보다도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 특히 독일이 다시는 나치 범죄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통합의 역사를 통해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평균 25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렀으나 전후인 1945년 이후부터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sup>40)</sup>

#### 4.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사상으로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의

40)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냉전체제 이후 유고슬라비아 내부의 민족별 강력한 민족주의 대두로 발생한 것으로 유럽통합의 영향력 밖에 있었으며 현재는 과거에 유고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 중에 슬로베니아가 현재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볼 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양차대전 사이,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형성되기 시작한 연방주의 유럽통합사상과 그 이후 실질적인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연방주의 유럽통합사상들보다 30년 정도 먼저 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인들은 오랜 동안 민족주의 체제에 적응되어 왔던 까닭에 현대사에서 진행되어 오는 초국가주의 또는 초민족주의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해 일종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통합을 위한 구체적 주요 정책들이 1909년 이미 안중근이 제안한 동양평화론 속에 들어 있음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본고의 제 2장에서 보았듯이 안중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일본이 점령한 旅順을 청에게 돌려주고 이를 공동의 군항으로 만들 것과 그곳에 삼국 대표를 파견하여 평화회의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앞의 3장에서 설명하였 듯이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 유럽인들이 알자스-로렌 지역을 두고 한 그러한 발상과 매우 유사하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알자스-로렌 지역은 민족적 갈등 지역이면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전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통합유럽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여 제 2차 세계대전 후 이를 실현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여순항은 명대로부터 전략적 기지로 인식되어 동양최대의 부동항으로 개발되었다. 이곳에 군항이 건설되었다. 청조는 이곳에 중국 최대의 북양함대를 건조하였다.<sup>41)</sup> 그런데 이를 일본이 호시탐탐 노렸으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를 점령하고 일본의 군항으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 여순항을 어느 나라보다도 러시아가 그들의 남하정책을 위한 부동항의 필요성에서 또한 탐내고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앞세운 3국 간섭을 통해 여순항이 일본으로부터 다시 청에게 귀속되게 하고 이를 청으로부터 조차하였다. 러시아는 이 부동항의 군항을 극동 해군함대의 기지로 개발했다. 그런데 1904년 2월에 수행된 러일 전쟁에서 승자가 된 일본이 다시 여순항을 차지하였다. 이번에 여순항은 일본 관동군의 기지가 되고 이곳에 관동도독부가 들어섰다.<sup>42)</sup> 이처럼 여순항은 지속적으로 지역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분쟁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존재해왔다. 안중근은 이 국제 분쟁지역을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려 하였던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안중근의 제안은 유럽인들이 30년 쯤 이후부터 유럽통합 사상과 실현과정을 통해 알자스-로렌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방식과 참으로 유사하다.

안중근은 여순항에 설립한 이 상설회의의 지부를 각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평화회의를 점차 인도, 태국, 미얀마 등의 동양 제국이 다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켜 범 동양공동체를 창설하자는 것을 또한 제안하였다. 유럽통합 사상가들도 이러한 방식의 지부 설립을 제안하였고 유럽통합 운동 및 실현 과정에서 이러한 지부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들 유럽통합주의자들도 점진적인 유럽공동체 창출을 생각하였다. 처음에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이 유럽공동체 (유럽연방) 를 시작하고 점차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앞장에서 언급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할 때 초창기 회원국들은 바로 이러한 뜻을 명시하였다. 유럽공동체는 처음에 6개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수차례의 회원국 확대 과정을 거쳐 현재 27개 회원국에 이르게 되었다.

41)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393 쪽.

42)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383-385 쪽.

43)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192 쪽;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393-394 쪽.

안중근은 공동의 기금 조성을 주창했다. 이러한 공동기금 조성 정책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유럽통합의 역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안중근의 이 제안은 얼마나 그가 지역공동체를 투철하게 구상했는지를 말해 준다고 하겠다. 유럽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유럽인들은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특히, 공동농업기금 그리고 공동지역기금 정책을 실시하여 공동으로 농업지역을 후원하고 상대적으로 미개발지역을 지원하여 유럽공동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유럽 공동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동기금 마련 정책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를 구상한 그리고 이를 실현한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안중근은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동통화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 공동은행 지점을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서로간의 신용을 두텁게 하고 동양평화가 돈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유럽통합을 구상함에 있어서 많은 유럽인들은 공동의 은행 설립과 공동의 화폐 창출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았다.<sup>45)</sup> 현재 유럽연합은 프랑크푸르트에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고 유로 (Euro) 라는 단일통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초국가주의적 유럽통합에 얼마나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동의 은행과 단일통화 이것은 공동의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역으로 효율적인 단일시장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중근의 공동은행 설립 및 공동통화 창출의 제안은 확실히 어떤 형태의 초국가주의적 지역공동체를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중근은 동양 삼국의 청년들로 편성된 공동 군대 창설을 주장했다. 1950년에 제안된 유럽 공동군대 개념은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수립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1954년에 실패하였다. 이때에 공동의 군대와 함께 이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정치공동체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를 또한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많은 찬성자들은 공동의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유럽연방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지름길이라고 했다. 지금은 서유럽연합 (WEU) 내에서 공동의 군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유럽통합사에서 유럽방위공동체 (EDC)와 유럽정치공동체 (EPC)의 실패는 최대의 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당시 연방주의 유럽통합론자들은 유럽공동의 군대가 창설되고 이를 통제하는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면 연방주의 유럽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 실패는 이들에게 더없이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만큼 공동의 군대 창설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설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안중근은 공동 군대의 구성원들은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어느 한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의 언어 및 공동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통합에서 모든 회원국 언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민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회원국의 모든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유럽공동체 (현재 유럽연합) 내의 가장 큰 문제가 회원국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통합을 상징하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정책영역으로 되어 있다. 2개의 회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공동의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한다. 유럽

44)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394 쪽.

45) 앞 장의 에이나우디 (Luigi Einaudi) 와 괴르텔러 (Carl Goerdeler) 의 연방주의 참조.

공동체에서 공동의 교육정책은 유럽 공동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럽 각국의 정체성을 넘어 유럽 공동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럽시민사회 실현을 꾀하는 것이다. 안중근은 공동의 군대에 편성된 청년들이 2개 이상의 어학을 배우는 동안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져 그만큼 더 우의를 다지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6)</sup> 이는 유럽통합론자들이 공동의 언어 및 문화정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했는데 유럽통합사에서 실현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 논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중근의 구체적 제안들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구한 결과들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본이 여순항 유지비 축소 등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기금 정책을 통해 재정확충을 할 수 있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 유럽통합에서 공동의 정책이 개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각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안중근은 일본의 지도아래 한국과 중국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경제공동체 창설과 운영방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는 안중근이 평등한 회원국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내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지 추호도 제국주의적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중근의 구상은 일본 맹주론을 수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유럽통합의 초기 과정에서 프랑스와 서독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이 인정되었다. 이 두 국가는 유럽통합을 위한 두 기관차로 불렀다.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럽지역통합을 세계통합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았다. 세계통합은 초국가주의 세계정부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안중근이 그가 인지한 '세계보편' 교회인 가톨릭교황으로부터 동양 삼국의 황제들이 대관을 받는 것을 상정한 것은 동양평화를 넘어서는 세계보편성의 추구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세계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 자신의 인지 속에 있는 가톨릭으로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종교관과 세계관의 조우라고 볼 수 있겠다.<sup>47)</sup>

그런데 유럽에서 이러한 초국가주의 공동체가 실현되어 오는 과정에는 회원국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창설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힘의 불균형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공동체는 약소 회원국을 강대 회원국에게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안중근의 구체적인 제안들에는 지역공동체 회원국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대한 필요성과 방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는 일본을 설득하여 동양평화론을 실현하려 한 것 같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목표가 내부의 전쟁원인을 제거하는데 있었던 것처럼 안중근은 이미 동아시아 내부의 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동양평화론을 제기한 것 같다. 유럽인들이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했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국주의를 한다면 결국 망하게 되고 재정파탄을 겪고 세계의 신뢰

46)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393-394 쪽.

47) 신운용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가톨릭의 '천명론'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506 쪽; 신운용, 「안중근의 민족운동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10-115 쪽.

를 잃고 한국과 청국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그와는 달리 일본은 이웃 국가들의 독립과 평등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동양의 지역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풍요를 누리고 리더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정책을 만일 일본이 실행만 한다면 일본은 태산같이 안정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sup>48)</sup>

안중근은 지역민들이 일반적으로 선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 즉, 지역 내의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 지도자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지배와 탐욕을 위해 공동체의 방향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자들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로서는 실현되기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점이 당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갖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위한 방책은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현실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이는 동양평화론의 한계점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을 실현하기에는 당시 시대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중근이 반전 평화에 기초한 동양평화론을 폈고 이는 초국가주의 지역통합을 통해 영구한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그가 한국 민족주의의 대의를 위해 군인이 되어 싸운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인들과 지역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에서 저항운동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싸웠다. 그들은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의 청사진을 그리며 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점령세력인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고 승리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독일인들과 화해하고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실현하여 영구평화를 달성하고 자 하였다.<sup>49)</sup>

유럽에서는 평등하고 주체적인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창출을 위한 형세가 제 2차 세계대전 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벽두인 현재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 오늘의 동아시아에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이 절실히 필요하고 적실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 5. 맺음말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현 시대를 위한 시사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현 시대에 대단히 큰 실효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견제와 균형의 개념과 방책이 없는 것이 큰 단점이었지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현재에는 그 실효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안중근이 살았던 제국주의의 시대와 오늘날의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는 국제정치현실은 물론, 근대국가의 체제도 완비하지 못했던 20세기 초의 대한제국의 역량과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21세기 초의 대한민국의 역량도 너무나 다르다.”<sup>50)</sup>

48) 「청취서」, 54 쪽.

49) 예를 들어, Claude Bourdet: 'The Future of Germany?', March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342-343 쪽; La Marseillaise: 'Our Europe', 14 July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351-352 쪽.

50)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403쪽.

그런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이 21세기에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민들이 공히 민족주의가 가질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진정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 과거사에 대해 투철하게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절실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절박한 문제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유럽의 전체적인 역사와 유럽통합사의 경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의 필요불가분성을 역설해 준다.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유럽과 같은 전쟁에 대한 절실한 문제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민족주의가 큰 대세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주의 유럽통합 사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과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 모색을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유럽인들이 경험했던 역사가 절실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 연방주의자들이 제기한 정치, 경제, 군사 부분에 걸친 지역공동체 창설의 필요성, 연방을 통한 소수민족 차별문제 해결, 국경 분쟁 해결, 지역문화 특성의 보존방식, 평화 민주 체제의 구축 등에 대해 특별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주의 유럽통합 사상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현실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것이어서 현실에서 실현은 고사하고 당대인들이 거의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하여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적실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 한국은 분단되어 있다. 안중근시대에는 한국이 약소국이어서 문제였지만 현재는 분단 상황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하고 이를 세계평화의 초석으로 삼을 것인가?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민족의 독립과 평등한 구성원들의 관계가 보장되는 국가들의 연합체 혹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실현에서 가능할 것이다. 안중근 사상의 핵심이 그것이었다. 유럽도 이와 유사한 사상과 정책을 통해 평화를 일구어 내고 독일의 분단문제와 냉전문제를 해결했다. 동아시아는 현재 유럽통합사상보다 먼저 정립된 안중근의 사상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중근은 한국만의 인물이 아니고 동양의 그리고 세계의 인물이다. 한국의 민족주의자로서 이등박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 동양공동체, 세계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 사상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오늘 공동의 정체성의 원천이고 상징적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서면의 연구가 잘 보여준다. 당시에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념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대학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한 연극이 상연되는 정도였다. 일본의 도쿄 세다가야에 위치한 당시 여순 형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의 딸집에는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이 있다.<sup>51)</sup> 이러한 측면에서 안중근과 안중근의 사상을 동아시아 지역민들이 친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사형언도를 받은 1909년 2월 안중근은 “일본은 이제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머지않아 ‘안중근의 날’을 크게 외칠 날이 올 것이다.”<sup>52)</sup> 고 했다.

현재 요청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안중근이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지역공동체 내용들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면밀히 살펴보고 계승하여 실현시켜 가야 할 것이다.

51)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195-200 쪽.

52)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205 쪽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안중근,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비매품>  
「청취서」,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비매품>
-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인종적 제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00년 여름호 제13집
- 김신재, 「〈獨立新聞〉에 나타난 ‘三國共榮論’의 性格」, 『경주사학』 제 9집
- 김영호, “북유럽에서 본 안중근”, 『경향신문』 2009년 8월 4일자 오피니언 칼럼
- 김현철, 「20세기초 한국인의 대외관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 권오중, 「1945년 이전 시기까지 중부유럽에서의 영토갈등. 독일 민족의 연고권에 따른 주변민족과의 영토문제와 국경의 변화 그리고 독일제국과 제3제국 시기의 소수민 정책 (1917~1945)」,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대출판부 200
- 노명환,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초국가주의와 민족·영토·역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독일 민족 경계의 축소를 전제로 한 유럽통합과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과정」,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국가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 신운용, 「안중근의 민족운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2009
-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최기영 편,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2003
-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집문당 (서울) 1994
- Albrecht, Karl, "Gustav Schlotter's view on the 'New Order in Europe', 19 July 1940",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 Bourdet, Claude, "'The Future of Germany?', March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 Comité Français pour la Fédération Européenne: "'Declaration",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I,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 Goebbels, Joseph, "The Europe of the Future, 11 September 1940",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 Goerdeler, Carl,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I,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 Goerdeler, Carl, "Practical Steps towards the Reorganization of Europe", early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Haas, Ernst,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Kant, Immanuel, (이한구 옮김), 『하나의 철학적 기획.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08 (개정판)

La Marseillaise: "'Our Europe', 14 July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Bd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Loth, Wilfried, *Der Weg nach Europa*, Göttingen 1990

Luigi Einaudi: "'For an economic federation of Europe'",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Moltke, Helmuth von, "'Assumptions and Problems' (9 June 1941)",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Nelsen, Bernt F. and Stubb, Alexander (ed.), *The European Union. Reading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uropean Integration*, (third edition), Boulder / London, 2003

## <국문요약>

안중근의 활동과 저술 및 진술을 볼 때 그는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측면들을 인지하게 한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모순적인 측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모순이 아닌 어떠한 새로운 일관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정립되어 간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과 제 2차 세계대전 후 실현되어 가는 유럽통합사를 반추해 보면서 안중근이 이들보다 더욱 선구적으로 초국가주의 지역통합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핵심요지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분단된 한국과 갈등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유럽통합론자들이 제기한 정치, 경제, 군사 부분에 걸친 지역공동체 창설의 필요성, 연방을 통한 소수민족 차별 문제 해결, 국경 분쟁 해결, 지역문화 특성의 보존방식, 평화 민주 체제의 구축 등에 대해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주의 유럽통합 사상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중근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도덕을 갖추고 각자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당시의 현실에서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의 식민지 상황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추구하였다. 위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는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공동체를 창설하고 자 하였다. 안중근은 이러한

평화체제를 위해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였던 것이다. 안중근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한국 민족주의의 궁극적인 염원을 초국가주의 동양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동양과 세계의 제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안중근, 동양평화론, 민족주의,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 Abstract

The 'On Permanent Peace for Asia' of An Chunggun compared to the Ideas and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 Does the 'On Permanent Peace for Asia' of An Chunggun mean the Establishment of Supranational Regional Community?

Meung-Hoan Noh (HUFS)

Many researchers and people understand An Chunggun as the nationalist who fough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his statements and actions show inconsistencies in understanding him

as a nationalist against Japan.

For instance, he expressed deep sympathy and loyalty to the Emperor of Japan.

That composed a main part of his idea for the permanent peace for Asia.

This kind of facts has been causing the controversy in the research.

In my opinion An Chunggun possessed the idea to establish the supranational regional community in Asia.

He was not a simple nationalist. In the short-term view he fough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gainst Japan. In the long-term view he pursued the permanent peace of Asia and the World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In other words, he intended eventually to realize his nationalistic goal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pranational peace order in Asia.

I think that he understood the so called nationalism as the cause of the war and the pains of the people. Of course, he should not have possessed such the concept of the nationalism as we discuss today.

I find very close similarities between his ideas on the permanent peace of Asia and the concept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permanent peace.

I am confident that the comparative researches on the Asian peace ideas of An Chunggun and European ideas should result in the very precious fruits.

This peace idea of An Chunggun has the world historical implications.

His idea was developed far earlier than the real start of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We need truly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and values of the ideas of An Chunggun regards the today's task of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community,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world peace.

Key Word: An Chunggun, On the Permanent Peace of Asia, Nationalism, Supranationalism, European Integration.